



누가 너의 가족이냐?

〈로열패밀리〉와 〈내 마음이 들리니?〉가 들려주는 가족의 본질

TV 드라마를 둘러싼 가족의 의미, 이를 살펴보는 연재의 본격적인 시작은 가족의 정의로부터 해볼까 합니다. 작년 봄 이맘 때 방송되면서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 두 편은 우리에게 “과연 가족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해 줍니다.

로 일찍 세상을 떠난 둘째 아들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거기다 JK에게 들어온 며느리들도 그 씨름을 진흙탕으로 만드는 데 큰 몫 합니다. 정계 및 제계에 인맥을 쌓기 위한 정략결혼이었으니 더 그랬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도 철저히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연횡*을 거듭하지요.

합종연횡(合縱連橫) 중국 전국시대의 최강국인 진(秦)과 연(燕)·제(齊)·조(趙)·위(魏)·조(趙) 사이의 외교 진술.

이 드라마에서 제일 충격적인 인물은 남편의 뒤를 이어 JK그룹을 이끌어온 어머니 공순호 회장이었습니다. 후계자를 뽑기 위해 자식을 가운데 이리저리 경쟁을 시킨 다음, 막내딸 현진에게 그룹을 물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공 회장은 딸에게 “너 자신을 제의하고는 파블라라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회사와 너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존재인 뿐이다”고 가르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본보기로 일컬어지는 모성(母性)마저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맥없이 힘을 잃고 맙니다.

〈로열패밀리〉 속 가족은 비록 핏줄로 얽혀있지만 독립적인 개인의 집합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정의하는 가족이란, 돈과 권력을 향한 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열패밀리〉의 JK家

첫 번째 드라마는 MBC에서 방송된 미니시리즈 〈로열패밀리〉입니다. 이 드라마는 가상의 JK그룹 재벌가 3세대 이야기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표적 재벌가 자손들이 유산을 둘러싼 소송을 벌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지요. 부자 가족들의 재산싸움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작년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형제자매 사이 좋으면 재벌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로열패밀리〉는 얼마 전 높은 시청률 속에 종영한 〈해를 품은 달〉 감독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미스터리 형식의 도입과 완성도 있는 연출로 호평을 받았지요. 이야기는 J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3남 1녀 사이의 치열한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모든 남매들이 서로 경영권을 손에 넣고 싶고, 이 되죠. 의사로서 그룹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고 사고



〈내 마음이 들리니〉의 봉우리네 가족

그런가하면, 비슷한 시기에 전혀 다른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 드라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역시 MBC에서 방송되었던 주말연속극 〈내 마음이 들리니〉입니다. 당시 많은 드라마가 ‘막장’이라고 비판받던 가운데, “착한 드라마”로 불릴 만큼 뭔가 다른 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각각 지적 장애인과 치매 노인 역을 맡은 배우 정보서와 윤여정의 연기가 돋보인 작품이기도 했지요.

이 드라마는 정신 연행이 일곱 살에 불과한 아빠를 사랑으로 돌보는 스물다섯 살짜리 봉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봉우리는 그런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차별을 받는 걸 보면 누구보다 앞장서 막아주려 합니다. 사팜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글자를 가르치고 숙제를 내주면서도, 아빠를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 애쓰는 딸이지요. 딸 우리에게 보내는 아빠 영규의 사랑도 눈물겹게 애뜻합니다. 봉우리네 집에 는 바보라고 놀림 받는 아들 영규를 평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공평한 살림에 남편도 없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덧 육쟁이가 돼버린 억척스런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서까지 가족을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봉우리네 가족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봉우리가 아홉 살 되던 해, 청각 장애인이었던 엄마가 지금의 아빠와

결혼하면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우리에게 피붙이라곤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드라바 할머니에는 영규도 할머니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지만, 장에 때문에 부모에게서 버림받자 식모살이하던 할머니가 친아들처럼 돌봐온 것입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들리니>는 훨씬 가족의 필요조건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피는 나누었으되 남보다도 못한 가족들을 대변시켜 보여주면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영규네와 한 집 사는 승철이네도 진짜 가족보다 더한 끈끈함을 보여주지요.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최후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가족들에게서만 인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 마음이 들리니>가 보여준 가족은 바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 완전함에 가장 가까운 가족의 모양을 사실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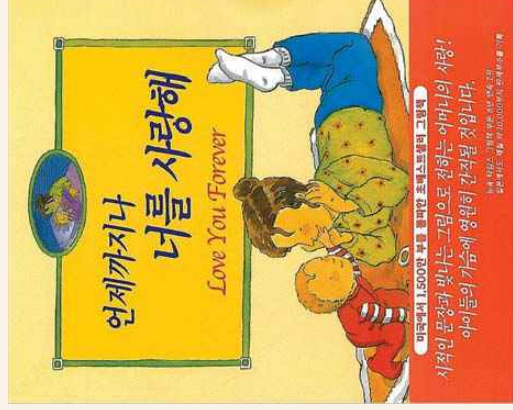
누가 너의 가족이나?

가족은 우리에게 허락된 최소 단위의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보다 남을 우선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손해도 감수하는 등 말이지요. 결코 쉽지 않은 그 사랑의 원리가 가족 사이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게 실천됩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허락하는 본능적 끌림과 오랜 시간을 공유하며 쌓인 친밀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두 드러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혈연만으로는 가족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J개갯집 피붙이 사이라도 사랑 없이 나 자신만을 앞세울 수도 있겠지요. <로열패밀리>는 단지 재벌가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해 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과 물질이 점차 우리 가족의 본질을 파괴해 가는 긴 부장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질적 욕망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 이용하려 드는 모습이 비단 재벌만의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가족이 우리의 인식척기 될 수 있는 이유는 핏줄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들리니>의 가족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돈과 재물이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사랑의 원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가족이 이 원리를 실천하고 훈련하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널리 퍼뜨리는 모형으로서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6

박진규 서울여대대학교 인문영양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진공문안은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Love You Forever」
(로버트 먼치 글, 안토니 루이스 그림, 김숙 역, 북뱅크)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 가까이 다가와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림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1986년에, 우리말 번역본은 2000년도에 출판되었으며 오랫동안 캐나다와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였으니 잘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꼭 안고 포근하게, 부드럽게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자장 자장 자장. 그리고 어머니는 아기에 가까이 다가와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림책이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 때문입니다. 원본은 1986년에, 우리말 번역본은 2000년도에 출판되었으며 오랫동안 캐나다와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였으니 잘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기는 무럭 무럭 자라나지만, 온갖 장난을 치고 때를 쓰고 버릇이 없어져서 엄마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밤이 되면 아이 방에 살며시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들이 견장을 수 없는 행동을 해대는 심대가 되었어도 엄마는 밤이면 아들의 방에 들어가 아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다 커버린 이들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덧 장성한 이들은 어른이 되고 짐을 떠나 이웃마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머니는 밤이면 아들집에 가서 아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곤 아들을 안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어머니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거동을 못하게 된 어머니는 아들에게 와달라고 부탁하고, 이번엔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자, 이번에는 아들이 어머니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이렇게 노래합니다.